

경제실 소관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642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6년 4월 15일
4. 회부일자 : 2026년 4월 15일

II.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제안이유

- 고유가 위기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2.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2조 9426억 9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1조 4856억 7천 5백만원에
대비하여 2.8%(1조 4570억 1천 7백만원) 증가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조 360억 7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1조 541억 3천 7백만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4조 9,066억 1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4,028억 8천만원) 증가함.

<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52,942,692	51,485,675	1,457,017	2.8
일 반 회 계	38,036,075	36,981,938	1,054,137	2.9
특 별 회 계	14,906,617	14,503,737	402,880	2.8

3.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가. 세입

- 경제실 소관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5,908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함.

<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590,870	590,870	-	-
일 반 회 계	590,650	590,650	-	-
균 형 발 전 계 특 별 회 계	220	220	-	-

나. 세출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234억 7천 1백만원에서 88억원(1.1%) 증가한 8,322억 7천 1백만원임.

<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832,271	823,471	8,800	1.1
행정운영경비	1,508	1,508	-	-
재 무 활 동	64,951	64,951	-	-
사 업 비	765,813	757,013	8,800	1.2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798억 4천만원 대비 88억원(1.1%) 증가한 7,886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함.

<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세출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832,271	823,471	8,800	1.1
일 반 회 계	788,640	779,840	8,800	1.1
도 시 개 발 특 특별 회 계	43,191	43,191	-	-
균 형 발 전 특 특별 회 계	440	440	-	-

- 주요 추경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을 위해 15억원을 증액함.
 -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을 위해 30억원을 증액함.
 - 중동전쟁 대응 긴급 물류비 바우처와 중동전쟁 피해기업 컨설팅 및 수출 기업 해외시장 진출 판로개척 지원 등을 위해 서울경제진흥원 출연금 43억원을 증액함.

III.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

- 당초 2026년 세계 경제는 선진국의 성장세가 소폭 개선되는 반면 중국, 인도 등의 신흥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지속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증가와 건설투자의 부진 완화 등에 따른 내수 회복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그러나 2026년 2월 28일 발발한 중동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당초 배럴당 68달러에서 134달러 수준으로 급등함에 따라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이에 따라 올해 3월에 OECD는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한 바 있음¹⁾.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지난 3월 31일 고유가 부담 완화(10.1조원), 민생 안정(2.8조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6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9.7조원), 국채상환(1조원)을 내용으로 하는 25조 1,72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²⁾을 제출하였으며, 국회는 4월 10일에 정부 제출안보다 34억원을 순감한 25조 1,688억원으로 의결하였음.
- 이에 대하여 서울수도 기정예산 대비 1조 4,570억원이 증액(2.8%, 총 52조 9,427억원)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 피해계층 밀착지원(1,202억원), ▶ 고유가 대응 체질개선(4,976억원), ▶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지원(1,529억원), ▶ 자치구 지원(3,530억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임.

1) 기존 전망치 : 2.1%(2025.12.), 수정 전망치 : 1.7%(2026.3.)

2) 내부거래를 포함한 총 규모는 26.2조원 규모이며, 총수입은 675.2조원에서 700.6조원(25.4조원 증가), 총지출은 727.9조원에서 753.1조원(25.2조원 증가)으로 증가함.

< 2026년도 서울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점투자 분야 >

(단위 : 억원)

피 해 계 총 밀 착 지 원	<div> <div>▸ 소상공인 지원</div> <div>811억원</div> </div> <div> <div>▸ 수출 중소기업 등 지원</div> <div>88억원</div> </div> <div> <div>▸ 취약계층 지원</div> <div>303억원</div> </div>	1,202
고유가 대응 체 질 개 선	<div> <div>▸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div> <div>4,695억원</div> </div> <div> <div>▸ 내연차량 친환경 전환</div> <div>281억원</div> </div>	4,976
고 유 가 피해지원금 매 칭 지 원	<div> <div>▸ 고유가 피해지원금</div> <div>1,529억원</div> </div>	1,529
자치구 지원	<div> <div>▸ 자치구 조정교부금</div> <div>3,530억원</div> </div>	3,530

2.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가. 세 입

- 경제실 소관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5,908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함.

<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변경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사 유
합 계	590,870	590,870	-	-
일반회계	590,650	590,650	-	-
국고보조금등	142,250	142,250	-	-
균형발전특별회계	220	220	-	-

나. 세 출

- 경제실 소관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8,322억 7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억원(1.1%)이 증액되었으며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경제실 세출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6%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886억 4천만원으로 3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8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사업은 없음.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15억원, 수출 보험(보증)료 지원 30억원, 서울경제진흥원 출연금 43억원이 각각 증액됨.

<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변경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내역
경제실 합계		(x142,470) 832,271	(x142,470) 823,471	(x-) 8,800	
일반회계 합계		(x142,250) 788,640	(x142,250) 779,840	(x-) 8,800	
경정 책 과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x-) 3,000	(x-) 1,500	(x-) 1,500	▪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확대(750→ 1,500개사)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x-) 4,600	(x-) 1,600	(x-) 3,000	▪ 중동·북아프리카 21개국 수출 중소기업 한도 상향(3백만원→8백만원) 및 지원규모 확대: 10억원 ▪ 단체보험 일괄가입(수출실적 연 5백 만원 이하): 20억원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x-) 62,668	(x-) 58,368	(x-) 4,300	▪ 긴급 물류비 바우처: 30억원 ▪ 중동전쟁 피해기업 컨설팅 및 수출기업 해외시장 진출 판로개척: 13억원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므로³⁾,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집행가능성, ▶한시성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추경예산 편성의 일반요건 >

요건	세부내용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연내집행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한시성	추경안에 편성되는 재정사업이 한시적 재정사업일 것

- 이번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전쟁에 따른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물류비 지원, 수출보험료 및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확대, 중동전쟁 피해기업 컨설팅 및 수출기업 해외시장 진출 판로개척 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편성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3)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후단 생략)

3. 사업별 검토

가.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별설명서 17쪽)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외상거래 실패에 따른 부도와 연쇄도산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5억원(100.0%)이 증액된 30억원이 편성됨.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	1,500	1,500

- 동 사업은 지원조건에 맞는 서울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50%(5백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했으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제도임.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개요 >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예산 : 3,000백만원(2백만원 × 1,500개사)
- 지원대상 : 연 매출액 500억 미만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 50% 지원(기업별 5백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신용보증기금 위탁(지자체 협약보험)
- 사업수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이번 추경예산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거래대금 미회수 피해기업의 부도 및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15억원을 증액하고 지원 대상 기업을 750개사에서 1,500개사로 확대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판단됨.

- 다만 지원규모를 기존 대비 두배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등 사태로 인한 피해기업의 규모와 지원규모 확대의 적정성 및 산정근거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이 증액되면서 본예산의 의도적인 과소편성이 지적되어 온 바 있으며, 2026년의 경우에도 전년도 최종예산(25억원) 수준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반복적인 추경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적정규모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추경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2026	3,000	1,500	1,500
2025	2,496	1,496	1,000
2024	2,500	1,500	1,000
2023	1,000	-	1,000

나.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사업별설명서 21쪽)

-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무역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수출위험 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0억원(187.5%)이 증액된 46억원이 편성됨.

<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600	1,600	3,000

- 동 사업은 지원조건에 맞는 서울시 중소기업이 수출보험에 가입시 보험료의 일부(3백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출보험은 중소기업이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다양한 위험요소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 일부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상해주는 제도임.
- 이번 추경예산에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21개국⁴⁾ 수출 중소기업 지원한도 상향(3백만원→8백만원) 및 보험료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10억원)하고, 연 수출액 500만불 이하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22,000개사를 대상으로 단체보험(단기수출보험⁵⁾ 일괄가입⁶⁾을 지원(20억원)하기 위하여 30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개요 >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예산 : 4,600백만원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5,000만불 이하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
 - 수출보험·보증료 지원(26억원): 수출보험 가입 시 보험료 지원(기업별 3백만원 한도)
 - ※ 중동·북아프리카 21개국 수출기업의 경우 기업별 8백만원 한도 지원
 - 단체보험(단기수출보험) 일괄가입(20억원): 연 매출 500만불 이하 중소기업 22,000개사
- 지원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사업 대행
- 사업수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 동 사업은 중동 사태로 인하여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판단됨.
- 그러나 동 사업예산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기초자료와 이들 기업의 피해 규모 및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편성된 것으로 지원 대상 및 규모 산정의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4) 아랍에미리트연합,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모로코 등

5) 지자체 등 지원기관 또는 단체(협회 등)가 보험계약 절차를 진행하여 일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자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발생 시 최대 10만불(지자체별 상이)까지 보상받는 제도

6) 2024년 현재 경기, 부산 등 10개 광역자치단체와 오산, 밀양 등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임.

- 또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10억원)은 중동·아프리카 21개국 수출기업에 한해 지원한도를 상향(3백만원→8백만원)하였으나, 사업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 추경예산의 취지와 달리 일반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활용될 여지가 높음.
- 이에 따라 동 사업은 매년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이 반복적으로 증액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증액분 중 일부는 기존의 반복적인 추경예산 편성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추경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2026	4,600	1,600	3,000
2025	2,500	1,500	1,000
2024	2,500	1,500	1,000
2023	2,000	1,500	500

- 또한 단체보험 일괄가입 지원(20억원)의 경우 중동 상황과 연관성이 낮은 기업까지 포함될 수 있어, 중동 사태 대응이라는 추경예산 편성 목적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즉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및 운송비 증가 등으로 영세 수출기업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은 있으나, 업종·수출지역·거래구조 등에 따라 영향의 정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지원대상을 설정하는 것은 추경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중동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피해 규모 및 지원 수요 등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에 의존하는 사업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사업설명서 25쪽)

- 동 출연금은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 및 자원 수급 불안으로 서울 소재 중소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수출 피해 최소화 및 신흥 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583억 6천 8백만원 대비 43억원 (7.4%) 증액된 626억 6천 8백만원이 편성됨.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62,668	58,368	4,300

- 출연금 증액 사업은 ▶중동전쟁 대응 물류비 긴급지원 30억원 ▶중동 전쟁 피해기업 분야별 전문 컨설팅 지원 10억원 ▶수출기업 해외시장 진출 판로개척 3억원으로 구성됨.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서울경제진흥원 출연금 증감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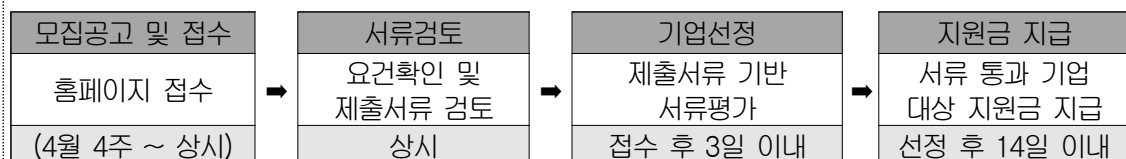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출연금	○ 중동전쟁 대응 물류비 긴급 지원(바우처) 30,000,000원*100개사 = 3,000,000천원
	○ 중동전쟁 피해기업 분야별 전문 컨설팅 지원 10,000,000원*100개사 = 1,000,000천원
	○ 수출기업 해외시장 진출 판로개척 150,000,000원*2회 = 300,000천원
	증감사유
	○ 중동지역 직접 수출(경유)기업 물품 반송, 우회 운송료 할증 등 물류비 증가분 긴급 지원(30억원, 100개사) ○ 통관·인증·컨설팅 등 기업별 수요 맞춤형 전략 및 마케팅 지원 (10억원, 100개사) ○ 중동 수출 피해기업 대상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체시장(중국, 동남아) 등 발굴하여 현지 무역사절단 및 수출상담회 개최(3억원, 30개사)

(1) 중동전쟁 대응 물류비 긴급 지원(바우처)

- 물류비 긴급 지원은 서울에 소재하고 중동지역에 직접 수출하거나 경유하는 기업의 물품 반송, 우회 운송로 이용에 따른 할증, 운송료 인상 등으로 인한 물류비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30억원이 신규 편성됨.
- 이와 관련하여 중동사태 기간 중 서울시에 접수된 기업 민원 159건 중 운송차질과 물류비 증가⁷⁾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한 민원이 전체 55.3%에 이르는 88건임을 감안할 때 동 추정 사업은 시의적절한 지원으로 사료됨.

<중동전쟁 대응 물류비 긴급 지원>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 사업대상 : 서울 소재 중동 수출 피해기업 100개사 내외
- 사업내용 : 중동지역 직접 수출(경유)기업 물류비 긴급지원
 - 중동지역 직접 수출(경유)기업 물품 반송, 우회 운송료 할증, 운송비 인상분, 물류 지연 및 장기화 등 물류비 긴급지원(최대 3천만원)
 - 물류비 선집행 후 제출한 지출 증빙서류 기반 사후 정산방식
- 바우처 지급 프로세스
 - 모집공고 : 4월 4주차 ~ 상시모집 (※ 예산 소진시까지)
 - 선정결과 안내 : 적격여부 검토 후 3영업일 이내 개별 통보
 - 지원금 지급 :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



- 다만 서울시에 소재한 중동사태 피해기업 수와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이 없이 긴급하게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지원 규모(최대 3천만원)와 수요(100개사 내외)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7) 서울시(기업지원팀) 기업 애로상담 신고센터 민원 접수(2026.3.6.~4.8.) 현황

- 운송차질 67건(42.1%), 물류비 증가 21건(13.2%), 대금미회수 7건(4.4%), 기타 64건(40.3%)

- 따라서 예산 편성 이후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원 수요와 적정지원 규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유연하고 세밀한 사업 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 또한 진흥원은 바우처 지급을 위해 물류 피해 관련 서류의 진위 확인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업 피해 입증 심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행정처리 소요 시간이 과다할 경우 지원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중동 수출 피해기업 입증 방안 및 증빙 확인 절차

- ① 수출 사실, ② 실제 물류비 지출 사실, ③ 사태 발생 전후의 물류비 증가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관세사 등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소명된 경우로 최종 지원 여부 결정
- 동일·유사 운송 건 여부는 품목, 목적지, 운송수단, 중량·부피, 거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
 - (수출 사실) 수출신고필증, 선적서류(B/L 등)를 통한 실제 수출 이력 확인
 - (지출 사실) 운임명세서(Invoice),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을 통한 실 지출액 확인
 - (피해 여부) 사태 이전의 동일·유사 운송 건 대비 운임 상승분 및 추가 발생 물류비 확인
- ※ 피해 입증을 위한 '비교 기준 운송 건'은 사태 발생('26.02.28.) 이전 내역으로 한정하며, 비교 가능한 동일·유사 운송 이력이 없는 경우 피해가 인정되지 않아서 지원 불가 처리 예정

(2) 전문 컨설팅 지원 및 수출 판로개척

- ‘중동전쟁 피해기업 분야별 전문 컨설팅 지원(10억원)’ 과 ‘수출기업 해외시장 진출 판로개척(3억원)’ 은 피해 중소기업에 법률·기업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동 수출기업에는 대체 시장 개척 및 수출상담 등을 지원하는 것임.
- 중동 수출 피해기업은 동 지원을 통해 전문적인 컨설팅과 법률 상담을 제공받아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해외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경영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수출 판로개척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중동전쟁 피해기업 분야별 전문 컨설팅 지원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 사업대상 : 서울 소재 중동 수출 피해기업 100개사 내외
- 사업내용 : 중동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 컨설팅 지원
 - 법률, 관세, 통관, 물류 등 수출 관련 분야 전문 컨설팅 운영
 - 분야별 전문 상담지원 및 컨설팅을 통한 피해기업 애로사항 해소
 - 피해지역 실시간 정보 제공 등 수출 피해 해결을 위한 적극 대응

수출기업 해외시장 진출 판로개척

- 총사업비 : 300백만원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중소 수출기업(총 30개사 내외)
- 사업내용 : 중동 수출거래 피해기업의 대체 시장 개척을 위한 판로개척사업 확대
 - 동남아, 인도, 글로벌사우스 등 대체 시장으로 전환 및 판로개척 지원
 - 체험전시, 팝업스토어 등 라이프스타일, 서브컬처 등 K-브랜드 연계 시장 발굴
 - 바이오, 소비재 등 대체 타겟 국가를 대상으로 1:1 수출 상담회 진행

- 다만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중동사태로 인한 피해기업의 수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대상이 컨설팅 100개사 내외, 대체 시장 개척에 30개사 내외로 한정되어 있어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규모(약 169.6만개⁸⁾)를 고려하면 적절한 수준의 지원인지 의문임.
- 또한 해외시장 개척에는 장기간의 시장분석·진입 준비·전략 상품 마련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단년도 추경예산의 지원과 2회의 수출상담회만으로는 피해기업의 경영 지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있을 경우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입법조사관	연락처
신현두	2180-8055
이성찬	2180-8061

8)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8페이지 '〈표5〉지역별 중소기업 현황' 참조(2025.8.29.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18489>